



▣ 사료피 신품종 소개

- 국내에서 육성된 사료피 신품종은 숙기에 따라 조생종, 중생종, 만생종으로 구분되며, 재배 목적과 이용 형태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.
- 조생종 품종은 생육 기간이 약 60일로 짧고 초고가 비교적 낮아 단기간 재배에 적합하며, 응급조사료로 활용 가능하다. 또한 줄기가 가늘어 건초 제조에 유리하다.
- 중생종과 만생종 품종은 초고와 줄기 직경이 크고 건물수량이 높아 조사료 생산성이 우수하고, 논을 이용한 답리작 재배에 적합하다.

〈 사료피 품종별 주요 생육 특성 및 생산성(축산원, '23~'25) 〉

구분	품종명	초고 (cm)	지엽너비 (cm)	줄기직경 (mm)	호영 안토시아닌색	건물수량 (톤/ha)
조생종	조온	144.5	2.4	5.7	없음	8.4
중생종	다운	178.8	2.4	6.5	매우 강	16.9
만생종	만온	182.8	2.9	7.3	약	14.5
재래종	제주재래피	193.0	2.3	6.7	중간	15.1
식용	보라직	138.0	2.6	7.3	강	7.3



‘조온’



‘다운’



‘만온’